

오염 심각 경각심 자극

조사·연구활동…쓰레기 회수등 현장 운동도



근래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 활동의 발전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나 오물·오염폐수가 바다와 해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상황이 구제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 오염의 상태를 걱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주로 자원봉사에 의한 해변 청소활동이 활발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바다의 환경보전 정책」과 연계하여 바다와 해변 가의 환경미화·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해안환경의 보전 정비를 지원·추진하였고, 예로부터 「푸르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다운 해변가」를 회복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하고자하는 「사단법인 바다와 해변 환경미화 추진기구(마린 블루21)」가 수산업자를 중심으로 1992년 6월말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계발 보급운동의 추이와 금후의 전개 방

향을 보기로 하자.

「바다와 해변 환경미화 촉진기구」의 이사장은 이 기구에 대하여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자손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 모금이 당면 최대 과제이다.

이와같은 사회적 사업은 정부의 원조를 일체 받지않는 재단법인의 「비정부 기관」(NGO) 활동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수산청 지도형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이상 그 방향에 따라 운동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은 많이 있으나 지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무엇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 그 외에는 지방조직체의 파악을 서두르는일, 유사한 자원봉사

‘쾌적한 바다 만들기’ 특집의 뜻 —

푸르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다운 해변, 그것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귀중한 재산이고 자연생태계의 유지나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이와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환경의 혜택을 받는 어항이 장차 어항어촌의 생활향상과 풍요로운 어장을 얻기 위해서는 어항관계사업 중에서도 지금까지 촌락배수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진흙덩이 준설, 해수교류시설등 환경에 손쉬운 시설정비를 실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어항어촌 클린업 모델사업을 창설하여 어촌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수처리시설을 만듦으로써 관광객

푸르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다운 해변,
그것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귀중한 재산이고
자연생태계의
유지나
환경의 보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쉽게 올 수 있는 등 역시 어촌 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일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어촌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에서도 기본목표에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의 형성」, 「아름다운 해변환경의 보전과 창조」등을 내걸고 어촌환경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전한 어촌만들기를 더욱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푸르고 풍요로운 바다나 아름다운 해변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하고 있는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때문에 그 고장 어업자를 비롯하여 그 지방의 漁協이

단체의 조정이 필요하다. 어떻든 간에 전 국민이 자기 부담의 자금을 출자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마음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6월 30일 설립 총회후 7월 4일짜로 농림수산청에서 법인허가가 나왔다. 매우 빠른 허가였다.

당연히 수산청도 전면적으로 밀어주기로 하고, 기구의 회원을 어업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널리 바다와 관계가 있는 산업계에 협력을 호소하여 관련 기기업체 등에서 출자해주었다. 都道府縣, 市町村의 지방자치단체도 참가하였다.

마린블루 21의 사업은 ①바다와 해변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 그 경과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간사·조장(藻場)의 정점(定点) 관측, 회소 수산 동식물의 보호, 바다 생태계와 어업에 관한 조사 ②기구를 중심으로 해변가의 쓰레기 회수등의 환경미화 활동, 자원봉사 단체에 활동자재의 조성을 하든가, 바다와 해변의 클린업 활

새 어항·어촌 클린업 모델사업 창설등 종합환경 개선 본보기

나 주민의 협력,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협력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의 환경보전정책과 연계하면서 전국 각지의 바다나 해변등에서 자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미화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도 환경미화의 보급·계발등을 위한 「바다와 해변의 환경미화운동」이나 물환경의 개선 기술의 보급등을 위한 「어촌 물환경 연구회」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지역의 자주적인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쾌적한 바다의 이용」을 특집으로 실는 것은 어항의 쓰레기 대책의 현황, 그 고장 주민의 협력현황 낚시꾼의 매너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각 어촌에서

자주적인 환경의 보전, 미화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대가 담겨있다.

「쾌적한 바다의 이용」을 특집으로 실는 것은 어항의 쓰레기 대책의 현황, 그 고장 주민의 협력현황 낚시꾼의 매너등을 소개하고 금후 각 어촌에서의 자주적인 환경의 보전, 기대가 담겨있다.

〔어항어촌 클린업 모델 사업이란〕

어민을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가슴을 펴고 자랑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아름다운 어촌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고 있는, 그러한 어촌을 하드웨어 면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동의 안내문 작성 배포등. ③ 보급 계발로서 바다나 해변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환경정화를 도모코자하는 포스트·이벤트, 심포지움의 개최등, 마스코트 캐릭터, 로고타이프, 심볼마크의 제작 ④홍보활동으로서 전국 일반 신문, TV, 업계전문지에 의견 광고도 내는 PR ⑤활동자

금을 조성하는 「바다의 날개」 모금운동을 중앙·지방에서 전개 ⑥기금조성 사업, 사업 활동을 자금면에서 지지하는 「바다와 해변 환경미화 추진 기금」을 5개년 계획으로 10억 엔을 목표로 세우고 각종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부금을 손금(損金)으로 산입할 수 있는 「특정 공익 증진 법

인」에 1993년 6월 28일자로 농림수산 대신에 지정되어 있다. 또 기업의 상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기금에 충당하는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그들 상품에는 본 기구 명과 「바다와 해변을 깨끗하게 합시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트커피의 카페오레, 우롱차, 田崎진주의 창립40주

년기념 자선음악회, 또 住友 VISA카드와 「바다와 해변 환경미화 추진기금 VISA카드」의 업무제휴를 하고 있다. ⑦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 서는 전국 풍요한 바다 만들기 대회에 참가·협력하여 대회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1992년 6월에 기구가 발족하는 즉시 7월 20일부터 31일 까지 2주간 농림수산성 1층 「소비자의 방」에서 바다와 해변의 클린업 운동을 테마로 한 「푸르고 풍요한 바다 만들기의週」 특별전시를 열었다. 방문객은 약 5,000명, 하루 평균 500명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앙에서도 높았다. 다음은 계발, 보급관계 사업을 소개 한다.

(1) 자원봉사 단체에 활동 자재를 조성

1992년도에는 40개 都道府 縣에 31만 4,000장(탄산칼슘 쓰레기봉지 15만 7,000장, 생물분해 쓰레기 봉지 15만 7,000장)의 환경에 적응하는 쓰레기 봉지를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에 都道府 縱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이 조성 활동은 「마린블루 21」의 존재를 알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이벤트 참가

1992년도에는 宮城, 千葉, 東京, 兵庫, 三重, 福岡, 熊本, 長崎의 1都 7縣이 17개소의 이벤트에 참가하였다.

(3) 포스터, 팜플렛에 의한 계발 보급

포스터와 팜플렛은 마린블루 21의 존재를 명백히 하는 절호의 방법

1992년도 --- ①포스터 4종류 19만 3,000장 ②팜플렛 2종류 23만 6,000부 ③리프렛 1종류 10만 6,000부 ④셀로테이프(바다와 해변의 명칭이 들어있음) 1종류 10,000권

1993년도--- ①포스터 1종류 4만 1,300장 ②팜플렛 2종류 24만 1,000부 ③셀로테이프 1종류 10,000권

(4) 비디오 배포

「바다로부터의 메시지」라는 비디오를 200개 제작하여 특히 관심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배포

(5) 패널의 제작·전시

4종류를 제작, 소비자의 방이나 전국 풍요한 바다 만들기 대회, 각종 이벤트에 대출하고 있다.

(6) 심포지움의 개최

1993년 7월에 생물계 공학 심포지움(東京), 생선의 항구 도시 동창회, '94년 3월 4일

에는 長崎東急호텔에서 기구 단독으로 「바다와 해변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마린블루 21을 바다와 어업의 거리인 長崎에 새겨 두었다.

(7) 전국에 걸친 해안 쓰레기 청소활동의 전개
환경기본법 성립 초년도인 1994년에 실시.

(8) 마스코트 캐릭터, 로고 타이프, 심볼마크의 제작
'94년도에 공모,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

(9) 의견광고
바다와 해변의 환경보전 필요성을 우리 국민 전체에 이 해시키기 위하여 '93년도말까지 일반신문에 2회, 업계 전문지에 5회 게재하였다.

아직 각 縣 지방위원회조직 도 전 연안에 미치지 않고 있다. 조직 만들기를 잊지 않도록 하자. 바다와 해변의 환경미화 운동은 사회공헌에 필요한 일로서 다가오고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빈틈없이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할 것이다. ▲

(筆者: 森田秀雄 「바다와 해변 환경미화추진기구' PR擔當)